

제104회 대한민국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대사범급 가형(정답기준안)

시험시간 : 14:00 ~ 15:00 (60분)

응시 부분	대사범급	수험 번호	
성명			
감독 확인			
<p>※주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시험지는 답안지와 겸용으로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2. 답안 작성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의 표기는 정자로 또박또박 기재한다. - 한글의 표기는 국어어법(맞춤법)에 맞게 정확하게 기재한다. 3. 답안지 작성 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위원의 조치에 따른다. <p>※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답처리 된다.</p>			

구 분	1검	2검	3검	최종점수	비고
채점위원					
점 수					

국가공인 한 자 급 수 자격검정관리운영기관
한자·한문전문지도사

社團
法人

大韓民國漢字教育研究會 · 大韓檢定會

<http://www.hanja.ne.kr>

■ 다음 제시된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0)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10)

㉠小人이 閒居에 爲不善하되 無所不至라가 見君子而後에 厭然揜其不善하고 而著其善하나니 ㉡人之視己 如見其肺肝然이니 則何益矣리오 此謂 誠於中이면 形於外라 故로 君子는 必㉢□其㉣□也니라

『大學』

1~5. 윗글에서 밑줄 친 ㉠을 國譯하시오.(5점)

[정답] 소인(小人)이 한가히 거함에 불선(不善)을 행하되 이르지 않는 바가 없다가, 군자(君子)를 본 뒤에 겸연쩍게 덮어 숨겨 그 불선함을 가리고 그 선(善)함을 드러낸다.

6~8. 윗글에서 밑줄 친 ㉡을 國譯하시오.(3점)

[정답]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이 마치 그 폐간(肺肝)을 보듯 하니, 곧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이를 일러, ‘마음을 성실히 하면 몸 밖에 드러난다.’한 것이다.

9~10. 위 글 ㉢과 ㉣의 □안에 들어갈 알맞은 漢字를 순서대로 쓰시오.(2점)

[정답] ㉢: 慎, ㉣: 獨.

[해설] 소인(小人)이 한가히 거함에 불선(不善)을 행하되 이르지 않는 바가 없다가, 군자(君子)를 본 뒤에 겸연쩍게 덮어 숨겨(슬그머니) 그 불선함을 가리고 그 선(善)함을 드러내나니,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이 마치 그 폐간(肺肝)을 보듯 하니, 곧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이를 일러, ‘마음을 성실히 하면 몸 밖에 드러난다.’한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것이다.

[해설] ㉠厭然(암연): 기가 꺾여 위축돼 은폐하고 감추는 모양이다. 厭然은 消沮閑藏之貌라(암연은 없애고 막고, 막아서(닫아서) 가리는 모습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1~20)

㉠樊遲從遊於㉡舞雩之下러니 曰 ㉢敢問崇德脩慝辨惑하노이다 子曰 善哉라
 問이여 先事後得이 非崇德與아 攻其惡이오 無攻人之惡이 非脩慝與아 一朝之
 忿으로 忘其身하여 以及其親이 非惑與아
 子路問政한대 ㉣子曰 先之勞之니라 請益한대 曰 無倦이니라

『論語』

11~12. 윗글에서 밑줄 친 ㉠‘樊遲’와(과) ㉡‘舞雩’의 讀音을 각각 쓰시오.(2점)
 [정답] ㉠: 번지, ㉡: 무우.

13~17. 윗글에서 밑줄 친 ㉢을 國譯하시오.(5점)
 [정답] “덕을 높이는 것과 사특함을 닦는 것 그리고 미혹함을 분별하는 것에 대
 해 감히 묻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한 질문이다. 일을 먼저 행하
 고 얻음에 우선하지 않음이 덕을 높이는 길이 아니겠느냐? 자신의 악함을 따
 지고 남의 악함을 따지려 들지 않음이 사특함을 닦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루
 아침의 분노로 그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려서 그 불행이 어버이에게까지 미치
 게 함이 미혹에 빠지는 길이 아니겠느냐?”

18~20. 윗글에서 밑줄 친 ㉣을 國譯하시오.(3점)
 [정답]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솔선할 것이며 부지런히 해야 한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청하자, “계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하셨다.
 [해석] 번지가 무우에서 중유하다가 아뢰었다. “덕을 높이는 것과 사특함을 닦는 것 그리고 미
 혹함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감히 묻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한 질문이다. 일을
 먼저 행하고 얻음에 우선하지 않음이 덕을 높이는 길이 아니겠느냐? 자신의 악함을 따지고
 남의 악함을 따지려 들지 않음이 사특함을 닦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루아침의 분노로 그 자
 신의 처지를 잊어버려서 그 불행이 어버이에게까지 미치게 함이 미혹에 빠지는 길이 아니겠
 느냐?”(顏淵 21) / 子路가 政事를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솔선할 것이며 부지런히 해야
 한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청하자, “계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하셨다.(子路 1)

제104회 대한민국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대사범급 가형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21~30)

宰我曰 以予觀於㉠夫子컨대 賢於堯舜이 遠矣로다 子貢曰 ㉡見其禮而知其
 政하며 聞其樂而知其德이니 由百世之後하여 等百世之王컨대 莫之能違也니 自
 生民以來로 未有夫子也시니라 有若曰 豈惟民哉리오 麒麟之於走獸와 鳳凰之於
 飛鳥와 泰山之於丘垤과 河海之於行潦에 類也며 聖人之於民에 亦類也시니 ㉢
 出於其類하며 拔乎其萃나 自生民以來로 未有盛於孔子也시니라

『孟子』

21~22. 윗글에서 밑줄 친 ㉠‘夫子’가 지칭하는 인물을 본문에서 찾아 漢字로 쓰
시오. (2점)

[정답] 孔子.

23~27. 윗글에서 밑줄 친 ㉡을 國譯하시오.(5점)

[정답] 그 禮를 보면 그 나라의 정치를 알 수 있으며, 그 음악을 들으면 그 군
주의 덕을 알 수 있다. 百世 뒤에 역대 제왕을 평가해 본다면 조금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공자만한 분은 계시지 않았다.

28~30. 윗글에서 밑줄 친 ㉢을 國譯하시오. (3점)

[정답] 그 부류에서 두드러지고 그 무리에서 빼어나다 하더라도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공자보다 위대한 경우는 있지 않다.

[해석] 재아가 말하기를 “나의 관점에서 공자를 보건대 요순보다 훨씬 어질다.”고 하였다. 자공
이 말하기를 “그 禮를 보면 그 나라의 정치를 알 수 있으며, 그 음악을 들으면 그 군주의 덕
을 알 수 있다. 百世 뒤에 역대 제왕을 평가해 본다면 조금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공자만한 분은 계시지 않았다.”고 하였다. 유약이 말하기를 “어찌 오직 백성뿐
이랴. 기린이 들짐승들에 있어서와 봉황이 날짐승들에 있어서와 태산이 언덕이나 개미굴에
있어서와 황하나 바다가 고인 물웅덩에 있어서 이러한 부류이며, 성인이 일반 사람들에 있
어서 역시 이러한 부류이다. 그 부류에서 두드러지고 그 무리에서 빼어나다 하더라도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공자보다 위대한 경우는 있지 않다.”고 하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31~40)

子曰 ㉠回之爲人也 擇乎中庸하여 得一善이면 則拳拳服膺而弗失之矣니라 子曰 ㉡天下國家도 可均也며 爵祿도 可辭也며 白刃도 可蹈也로되 中庸㉢□□□也
 나라 『中庸』

31~34. 윗글에서 밑줄 친 ㉠을 國譯하시오.(4점)

[정답] 안회(顏回)의 사람됨은 중용(中庸)을 택해 어떤 선(善)을 얻으면 정성스럽게 가슴속에 두어 잃지 않는다.

35~38. 윗글에서 밑줄 친 ㉡을 國譯하시오.(4점)

[정답] 천하와 국가도 고르게 할 수 있으며, 작록(爵祿)도 사양할 수 있으며, 흰 칼날도 밟을 수 있다.

39~40. 윗글에서 ㉢의 □안에 들어갈 알맞은 漢字를 쓰시오.(2점)

[정답] 不可能.

[해석]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안회(顏回)의 사람됨은 중용(中庸)을 택해 어떤 선(善)을 얻으면 정성스럽게 가슴속에 두어 잃지 않는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天下)와 국가(國家)도 고르게 할 수 있으며, 작록(爵祿)도 사양할 수 있으며, 흰 칼날도 밟을 수 있지만, 중용은 잘 할 수 없다”

제104회 대한민국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대사범급 가형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41~50)

㉠初에 武王이 作鎬京하고 謂之宗周라하니 是爲西都오 將營洛邑이라고가 未果러니 王이 欲如武王之志하실새 召公이 遂相宅하고 周公이 至洛하여 築王城하시니 是爲東都라 以洛爲天下中하니 四方入貢에 道里均也러라 王은 居西都而㉡□□諸侯於東都하고 ㉢周公 召公이 相成王爲左右하여 自陝以西는 召公이 主之하고 自陝以東은 周公이 主之하다 『史略』

41~46. 윗글에서 밑줄 친 ㉠을 國譯하시오.(6점)

[정답] 처음에 무왕이 호경을 짓고 이르기를 宗周라 하니 이것이 西都이고, 장차 낙읍을 경영하려다가 아직 시행하지 못하였더니 성왕이 무왕의 뜻과 같이 하고자하므로 소공이 드디어 땅의 마땅함을 보고 주공이 낙읍에 이르러서 왕성을 축조하니 이것이 東都이다. 낙양으로써 천하의 중심을 삼으니 사방에서 朝貢을 드림에 道里가 균등하였다.

47. 윗글에서 ㉡의 □안에 들어갈 알맞은 漢字를 쓰시오.(1점)

[정답] 朝會.

48~50. 윗글에서 밑줄 친 ㉢을 國譯하시오.(3점)

[정답] 주공과 소공이 성왕을 도와 좌우가 되어 섬(陝)으로부터 西로는 소공이 주관하고 섬(陝)으로부터 東으로는 주공이 주관하였다.

[해석] 처음에 무왕이 호경을 짓고 이르기를 宗周라 하니 이것이 西都이고, 장차 낙읍을 경영하려다가 아직 시행하지 못하였더니 성왕이 무왕의 뜻과 같이 하고자하므로 소공이 드디어 땅의 마땅함을 보고 주공이 낙읍에 이르러서 왕성을 축조하니 이것이 東都이다. 낙양으로써 천하의 중심을 삼으니 사방에서 朝貢을 드림에 道里가 균등하였다. 왕은 서도에 머무르다가 제후를 동도에서 조회하고 주공과 소공이 성왕을 도와 좌우가 되어 섬(陝)으로부터 西로는 소공이 주관하고 섬(陝)으로부터 東으로는 주공이 주관하였다.

[해설] ㉠鎬京(호경): 풍읍의 동쪽 도시 명. ㉡相(상): 땅의 마땅함을 보고서 읍을 경영하는 것이다. ㉢召公(소공): 같은 형제인 周公과 함께 어린 성왕을 보필하여 주나라 왕조의 기반을 확립시켰다. ㉣周公(주공): 문왕의 아들, 무왕의 동생.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무왕이 돌아간 후에는 어린 성왕을 도와 주나라 왕실의 기초를 튼튼히 했다. 후세 사람들이 성인으로 일컫는다. ㉤陝(섬): 고을이름(河南州名).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51~60)

竹似賢하니 何哉오 竹本固하니 固以樹德이라 君子見其本이면 則思善建不拔者하며 ㉠竹性直하니 直以立身이라 君子見其性이면 則思中立不倚者하며 竹心空하니 空以體道라 君子見其心이면 則思應用虛受者하며 竹節貞하니 貞以立志라 君子見其節이면 則思砥礪名行하여 夷險一致者하니 夫如是故로 君子人多樹之하여 爲庭實焉이라 ...중략... 詢乎關氏之老則曰 此相國之手植者나 自相國㉡捐館으로 他人假居하니 繇是筐篚者斬焉하고 篲箒者刈焉하여 ㉢刑餘之材에 長無尋焉이요 數無百焉이라 又有凡草木이 雜生其中하여 茅蕀蒼蔚하여 有無竹之心焉이라 『古文眞寶』

51~55. 윗글에서 밑줄 친 ㉠을 國譯하시오.(5점)

[정답] 대나무 성질은 곧으니 곧음으로써 몸을 세우는지라 군자가 그 곧은 성질을 보면 중립하여 기울지 않을 것을 생각하며, 대나무 속은 비었으니 비움으로써 도를 체행하는지라 군자가 그 대나무 속을 보면 응용하여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생각하며, 대나무 마디는 곧으니 곧음으로써 뜻을 세우는지라 군자가 그 마디를 보면 이름과 행실을 부지런히 같고 닦아서 평탄하거나 험하거나 한결같이 할 것을 생각한다.

56~57. 윗글에서 밑줄 친 ㉡‘捐館’이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2점)

[정답] 별세함. 별세하여 관사를 떠남.

58~60. 윗글에서 밑줄 친 ㉢을 國譯하시오.(3점)

[정답] 베이고 남은 재목 중에 길이가 한 길(여덟 자)이 되는 것이 없고 그 수효가 백 개도 없다. 또 온갖 초목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자라서 무성하게 우거져 대나무가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해석] 대나무는 현자와 유사하니 어째서인가? 대나무 뿌리는 견고하니 견고함으로써 덕을 세우는지라 군자는 그 뿌리를 보면 곧 뜻을 잘 세워 뺨치지 않을 것을 생각하며, 대나무 성질은 곧으니 곧음으로써 몸을 세우는지라 군자는 그 곧은 성질을 보고서 곧 중립하여 기울지

제104회 대한민국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대사범급 가형

않을 것을 생각하며, 대나무 속은 비었으니 비움으로써 도를 체행하는지라 군자는 그 멧속을 보고서 곧 응용하여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생각하며, 대나무 마디는 곧으니 곧음으로써 뜻을 세우는지라 군자는 그 마디를 보고서 곧 이름과 행실을 부지런히 같고 닦아서 평탄하거나 험하거나 한결같이 할 것을 생각한다. 대저 이와 같기 때문에 군자라는 이들이 대나무를 많이 심어 뜰에 가득히 채우게 된 것이다. <정원 19년 봄에 나는 발철회로 급제에 뽑혀 교서랑을 제수 받았다. 처음 장안에서 임시로 거처할 곳을 구하여 상락리에 있는 옛 관상국 사저의 동쪽 정자를 얻어 거처하였다. 다음날에 발걸음이 정자의 동남쪽 모퉁이에 이르러 한 무더기 대나무가 이곳에 자라고 있는 것을 보니, 가지와 잎이 시들고 병들어 소리도 없고 색깔도 없었다.> 관씨의 노인들에게 물어보니, 말하기를 “이것은 관상국에서 손수 심은 것이었으나 관상국이 별세하여 관사를 떠남으로부터 타인들이 빌려 거주하니, 이 때문에 광주리를 만드는 자들이 베어가고, 빗자루를 만드는 자들이 베어가서, 베이고 남은 재목 중에 길이가 한 길(여덟 자)이 되는 것이 없고 그 수효가 백 개도 없다. 또 온갖 초목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자라서 무성하게 우거져 대나무가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해설] ◎백거이의 「養竹記:양죽기」는 대나무의 특징을 관찰하고 그것을 군자에 비유하면서 군자들이 좋아하고 본받고자 하는 이유를 서술한 글이다. 나아가 이러한 대나무의 뛰어난 점을 사람들이 인정해주어 잘 기르듯이, 위정자는 군자들의 훌륭한 덕성을 잘 파악하여 대우해주어야 할 것임을 드러내어, 인재를 등용하는 도리까지 연결시키고 있다. ◎詢(순): 묻다. 자문하다. ◎捐館(연관): 집을 떠남. 별세함. ◎繇(요): 말미암다. 역사(役事). 부리다. ◎筐篚(광비): 대광주리. ◎篲箒(수추): 대나무 비. ◎茶蓐蒼蔚(분준회위):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 우거진 모양. ◎茶(분): 풀이 떨기로 나다. ◎蓐(준): 무성한 모양. 우거지다. ◎蒼(회): 무성하다. ◎蔚(위): 무성하다. ‘답답하다’의 뜻으로는 ‘울’로 읽는다.

※ 다음 詩를 읽고 물음에 알맞은 答을 쓰시오. (61~70)

滄茫㉠歲暮天한데 ㉡新雪遍山川이라
鳥失山中木하고 ㉢僧尋石上泉이라
㉣飢鳥啼野外한데 ㉤凍柳臥溪邊이라
㉥何處人家在오 ㉦遠林生白煙이라

『龜峯集』

61~62. 위 詩의 밑줄 친 ㉠‘歲暮’와(과) ㉡‘新雪’의 뜻을 각각 쓰시오.(2점)

[정답] ㉠: 연말(年末), ㉡: 첫눈.

63~64. 위 詩의 밑줄 친 ㉢‘僧尋’의 訓음을 각각 쓰시오.(2점)

[정답] 僧: 중, 스님 승, 尋: 찾을 심.

65~70. 위 詩의 밑줄 친 ㉣~㉦을 각각 國譯하시오.(6점)

[정답] ㉣: 굶주린 까마귀는 들녘에서 우는데. ㉤: 얼어붙은 버드나무는 시냇가에 누워 있네. ㉥: 어느 곳에 인가가 있는가? ㉦: 멀리 숲에서 하얀 연기 피어 오르네.

[해석] 세밑의 하늘은 아득하기만 한데, 첫눈이 산천에 두루 내렸네. 새들은 산중의 나무를 잃고 스님은 돌 위의 눈 덮인 샘물을 찾네. 굶주린 까마귀는 들녘에서 우는데 얼어붙은 버드나무는 시냇가에 누워 있네. 어느 곳에 인가가 있는가? 멀리 숲에서 하얀 연기 피어오르네.

[해설] ㉡제목: <新雪(신설)>. ㉡출전: 『陶隱先生詩集』. 조선 전기에 간행된 이숭인의 시문집. ㉡지은이: 이숭인(李崇仁, 1347~1392)은 고려 말기의 대표적인 문인 중에 한 사람. 자는 자안(子安), 호는 도은(陶隱). 목은(牧隱) 이색(李穡),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와 함께 고려의 삼은(三隱)으로 일컬어진다. ㉡형식: 五言律詩 (韻字: 1句-天, 2句-川, 4句-泉, 6句-邊, 8句-煙). ㉡감상: 첫눈이 내린 다음의 산천의 정경을 사실화처럼 나타낸 시. ㉡歲暮(세모): 세밑. 연말(年末). ㉡白煙(백연): 모락모락 피어나는 하얀 연기. ㉡啼(제): 울다.

제104회 대한민국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대사범급 가형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71~80)

午到鐵甕東門하니 ㉠二士總其樓하고 數童從焉이라 持酒待我러니 同遊之尹生明生也라 ㉡敍吾行色하고 謝彼勤意하며 竝轡而入하니 香山之行이 固草草라 不能窮搜極探이라 然이나 其名蒼勝區로 如佛智見佛賓鉢諸寺를 皆一歷之나 ㉢獨恨路廢하야 不得登毘盧香鑪하야 一望遼海而來耳라 凡遊以趣爲主하고 行不計日하며 遇佳卽止하며 携知己友하고 尋會心處니라 『妙香山小記』

71~72. 윗글에서 밑줄 친 ㉠‘二士’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本文에서 찾아 漢字로 쓰시오. (2점)

[정답] 尹生과 明生.

73~75. 윗글에서 밑줄 친 ㉡을 國譯하시오. (3점)

[정답] 나의 행려(行旅)를 서술하노니 저들의 은근한 뜻에 감사하며 고삐를 나란히 하고 일정에 들어갔다. 묘향산 여행이 참으로 바쁜지라 매우 깊은 곳까지는 다 찾아다닐 수 없다.

76~80. 윗글에서 밑줄 친 ㉢을 國譯하시오. (5점)

[정답] 다만 길이 황폐하여 비로봉과 향로봉에 올라 먼 바다를 한 번 바라보고 올 수 없었던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무릇 유람은 흥취를 으뜸으로 삼고 가는데 날짜를 헤아리지 아니하여 아름다운 곳을 만나면 곧 머무르며 나를 알아주는 벗을 이끌고 마음에 맞은 곳을 찾는 것이다.

[해석] 낮에 철옹 동문에 이르니 두 선비가 그 누각에서 쉬고 두어 명 아이들이 시종을 들고 있었다. 술을 가지고 나를 대접하는 이는 함께 유람할 운생과 명생이었다. 나의 행려(行旅)를 서술 하노니 저들의 은근한 뜻에 감사하며 고삐를 나란히 하고 일정에 들어갔다. 묘향산 여행이 참으로 바쁜지라 매우 깊은 곳까지는 다 찾아다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이름난 암자와 명승지인 불지사·견불사·빈발사 등과 같은 여러 절을 모두 한 번에 둘러보았다. 다만 길이 황폐하여 비로봉과 향로봉에 올라 먼 바다를 한 번 바라보고 올 수 없었던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무릇 유람은 흥취를 으뜸으로 삼고, 가는데 날짜를 헤아리지 아니하여, 아름다운 곳을 만나면 곧 머무르며, 나를 알아주는 벗을 이끌고 마음에 맞은 곳을 찾는 것이다.

[해설] ◎제목: <妙香山小記(묘향산소기)>. ◎<妙香山小記>: 張豪晟은 <漢文科 教材의 問題 - 제7차 교육과정 高等學校 漢文 教科書를 중심으로>(漢文教育研究 第22號, 2004. 6.)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은 북한에서 간행된 『기행문선집』에 朴齊家의 <妙香山小記>라고 소개된 자료인데, 우리 쪽에는 이 자료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原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에 제시된 어구 풀이는 여러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먼저 ‘敍吾行色’의 풀이는 적절치 못하다. 여기에서의 ‘行色’은 ‘걸음으로 드러나는 차림이나 태도’ 또는 ‘길을 떠나기 위하여 차리고 나선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行旅’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나의 여행(내가 명승지를 탐방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다’ 정도로 풀이해야 한다. 또 ‘香山之行, 固草草’와 ‘不能窮搜極探’의 풀이 역시 잘못이다. ‘草草’를 ‘풀이 많아 거친 모양’이라 설명하였는데, 여기서는 ‘바쁜(충만한) 모양’·‘몹시 서둘러 급작스러운 모양’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묘향산 여행은 진실로 바쁘고 급하여 구석구석 다 찾아볼 수 없었다’ 정도로 이어서 풀이해야 한다. 그리고 ‘獨恨路廢’와 ‘一望遼海而來耳’를 따로 떼어 어구 풀이를 하였는데 이 역시 誤譯이다. 이는 “길이 황폐하여 비로봉과 향로봉에 올라 한 번 요해를 바라보고 올 수 없었던 것이 유독 한스러울 뿐이다” 정도로 이어서 풀이해야 한다.” ◎박제가(朴齊家, 1750-1805): 자는 재선(在先)·수기(修其)·차수(次修)이고 호는 초정(楚亭)·위향도인(葦杭道人)·위향외사(葦杭外史)·정유(貞莸)이다. 그는 조선후기의 실학자이며 박지원(朴趾源)·이덕무(李德懋)·이서구(李書九) 등 북학파들과 교류하며 실학을 탐구했다. 저서는 그의 문집인 『정유각집(貞莸閣集)』이 있다. 현재 저자의 문집은 刊本은 없고 寫本만이 전해진다. 사본은 시집과 문집이 따로 있으며, 모두 筆寫者와 筆寫 時期는 알 수 없다. ◎묘향산(妙香山): 예로부터 동금강(東金剛), 남지리(南智異), 서구월(西九月), 북묘향(北妙香)으로 일컬어지면서 4대 명산의 하나로 꼽혔다. 이곳에 환웅이 내려와 우리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구국의 명승 서산대사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甕(옹): 독. ◎焉(언): 종결 어조사. ◎尹生明生(윤생명생): 尹씨 明씨 성의 書生. ◎敍吾行色(서오행색): 나의 행려를 서술하다. 行色(행색)은 행색은 걸음으로 드러나는 차림이나 태도나 길을 떠나기 위하여 차리고 나선 모양을 뜻함. 여기서는 행려(行旅)의 뜻으로 쓰임. 행려는 여행, 여행자, 나그네의 뜻. ◎轡(비): 고삐. ◎固草草(고초초): 진실로 급작스러웠다. 草草는 풀이 많아 거친 모양, 허둥지둥하는 모양을 뜻하는 의미이지만 ‘바쁜(충만한) 모양’·‘몹시 서둘러 급작스러운 모양’으로 쓰이기도 한다. ◎搜(수): 찾다. ◎不能窮搜極探(불능궁수극탐): 깊은 곳까지 다 찾아다닐 수 없다. ◎菴(암): 암자. ◎佛智(불지): 불지사(佛智寺). ◎見佛(견불): 견불사(見佛寺). ◎賓鉢(빈발): 빈발사(賓鉢寺). 불지사, 견불사, 빈발사는 모두 묘향산에 있는 절. ◎鉢(발): 바리때. ◎獨恨~不得~耳(독한~부득~이): ~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이 유독 한스러울 뿐이다. ◎毘盧(비로): 비로봉(毘盧峰). 높이 1,909m. 묘향산 최고봉. ◎毘(비): 뚝다. ◎香爐(향로): 향로봉(香爐峰). 높이 1,600m. 묘향산의 대표적인 봉우리. ◎爐(로): 숯그릇. ◎遼海(요해): 遼東의 바다. 발해. ◎遼(료): 멀다.

제104회 대한민국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대사범급 가형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81~90)

㉠尹淮가 少時에 有鄉里之行하여 暮投逆旅라 主人이 不許止宿하여 坐於庭邊이라 主人兒가 持大眞珠出來라가 落於庭中이어늘 傍有白鵝하여 卽吞之라 已而요 主人이 ㉡索珠不得하고 疑公竊取하여 縛之하고 朝將告官이라 公不與辨하고 只云 彼鵝亦繫吾傍하라하다 將朝에 珠從鵝後出하니 ㉢主人이 慚謝曰 昨何不言고하니 公曰 昨日言之면 則主必割鵝索珠라 故로 忍辱而待라하더라 『燃藜室記述』

81~85. 윗글에서 밑줄 친 ㉠을 國譯하시오.(5점)

[정답] 율희가 젊었을 때에 시골마을로 여행하다가 날이 저물어 여관에 투숙하려 하니, 주인이 머물러 묵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뜰 가(뜰 앞, 트랙)에 앉아 있었다. 주인집 아이가 큰 진주를 가지고 나오다가 뜰 가운데 떨어뜨렸는데 곁에 있던 흰 거위가 곧바로 그것을 삼켜 버렸다.

86. 윗글에서 밑줄 친 ㉡‘索’의 알맞은 훈음을 쓰시오.(1점)

[정답] 찾을 색.

87~90. 윗글에서 밑줄 친 ㉢을 國譯하시오.(4점)

[정답] 주인이 부끄러워하며 사죄하여 말하였다. “어제는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공(公)이 말하였다. “어제 그것을 말했다면 주인은 분명 거위의 배를 갈라 구슬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옥뿔을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해석] 율희가 젊었을 때에 시골마을로 여행하다가 날이 저물어 여관에 투숙하려 하니, 주인이 머물러 묵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뜰 가(뜰 앞, 트랙)에 앉아 있었다. 주인집 아이가 큰 진주를 가지고 나오다가 뜰 가운데 떨어뜨렸는데 곁에 있던 흰 거위가 곧바로 그것을 삼켜 버렸다. 얼마 후 주인이 구슬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공(公)이 흠쳐갔다고 의심하여 그를 묶어 두고 아침이 되면 장차 관가에 고발하려고 하였다. 공(公)이 더불어 변명하지 않고 다만 이르기를 “저 거위도 또한 내 곁에 묶어 두시오.”라고 하였다. 아침이 될 무렵, 진주가 거위의 배설물을 따라 나오니 주인이 부끄러워하며 사죄하여 말하였다. “어제는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까?” 공(公)이 말하였다. “어제 그것을 말했다면 주인은 분명 거위의 배를 갈라 구슬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욕됨을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해설] ◎제목: <忍辱而待(인욕이대)>. ◎출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조선 후기의 학자 이공익(李肯翊)이 지은 조선시대 야사총서(野史叢書). ◎이공익(李肯翊: 1736~1806): 조선 후기의 학자. 실학을 제창하고 고증학과 학자로서도 유명했다. 소론(少論)의 한 사람으로 당론을 강력히 주장, 노론(老論)이 집권하자 여러 번 귀양을 갔다. ◎逆旅(역려): ‘여관(旅館)’의 별칭으로, ‘逆’은 ‘맞이하다’라는 뜻. ◎庭中(정중): ‘中’은 ‘國中’이나 ‘市中’의 中과 같이 ‘~의 안쪽’이라는 의미. ◎鵝(아): 거위. ◎已而(이이): 이윽고, 얼마 후. ◎將(장): 가까이 일어날 미래를 서술할 때 쓰는 부사(副詞). ◎將朝(장조): 막 아침이 되려는 무렵. ◎從(종): ~를 따라, ~로부터. *坐於庭邊은 坐於庭畔으로 되어 있고, 傍有白鵝는 旁有白鵝로, 已而是 俄而로, 割鵝索珠는 割鵝覓珠로 각각 표기되어 있음.

■ 다음 물음에 대해 답하십시오. (91~100)

孟子曰 孔子登東山而小魯하시고 登太山而小天下하시니 故로 觀於海者엔 難爲水요 遊於聖人之門者엔 難爲言이니라 觀水有術하니 必觀其瀾이니라 日月有明하니 容光에 必照焉이니라 流水之爲物也 不盈科면 不行하니니 君子之志於道也에도 不成章이면 不達이니라 『孟子』

91~95. 윗글을 國譯하십시오.(5점)

[정답]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자께서 동산(東山)에 올라가셔서 노(魯)나라를 작다고 여기셨고, 태산(泰山)에 올라가셔서 천하를 작다고 여기셨다. 그러므로 바다를 본 사람에게는 큰 물이 되기 어렵고(여간한 냇물은 좀처럼 물로 보이지 아니하고), 성인의 문하에서 배운 사람에게는 훌륭한 말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여간한 말은 좀처럼 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여울목을 보아야 한다. 해와 달은 밝음을 가졌으니 빛을 용납하는 곳에는 반드시 비춘다. 흐르는 물의 물건 됄은 웅덩이를 채우지 못하면 흘러가지 못하니, 군자가 道에 뜻을 두더라도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96~100. 윗글은 “성인의 道”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성인의 道의 어떤 점을 나타낸 것인지 설명하고, 이 道를 배우는 자세를 본문에 의거하여 논술하십시오.(5점)

[정답] “처한 곳이 더욱 높으면 그 아래를 봄에 더욱 작아지고, 본 것이 이미 크면 작은 것은 이미 죽히 볼 것이 못되며 물 되기가 어렵고 말 되기가 어렵다는 것”은 성인의 道가 크을 비유한 것이고, “물의 여울목을 보면 그 水源에 근본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해와 달이 빛을 용납하는 틈에 비추지 않음이 없음을 보면 그 밝음에 근본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은 道에 근본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성인의 도는 근본이 있는 것(有本)을 취하신다. 그렇기에 웅덩이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채워나가야지, 단계를 뛰어서는 엽등을 해서는 안 되며 성인의 도를 배우는 자는 불사주야 끊임없이 흘러 나아가는 자세를 취하여 漸進的으로 하여야 능히 이루고 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면 정답으로 인정함.

☞수고하셨습니다.